

# 취업 증가 30만명선 회복 청년체감실업률은 '악화'

### 9월 고용동향...실업자 100만명 아래로

20만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폭이 9월 들어 30만명대로 회복했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 밑으로 떨어지며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684만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월 37만1000명 ▲3월 46만6000명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명 ▲6월 30만1000명 ▲7월 31만8000명 등으로 6개월 연속 증가하다 지난 8월 21만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4년 6개월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보여 우려를 키웠으나, 한 달만에 다시 30만명 선으로 복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건설업 부문이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고용 상황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아파트 준공물량이 늘어난 데다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일용

직 근로자가 5만명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명 늘었다. 지난 6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넉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6만2000명), 도매및소매업(+4만8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건설업이 일용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회복했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9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개선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46.9%로 보험세를 보였다.

실업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8월(100만1000명) 100만명을 넘어섰던 실업자는 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9.2%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상황 전반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지만, 체감실업률이 솟는 등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10.5%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을 아우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산업은 수요가 부족해, 20대는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좋지 않다"며 "청년층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보조지표3에 반영돼 (체감실업률)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광주신세계, 따뜻하고 부드러운 밍크 머플러 선보여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임훈) 2층 닥스 매장에서는 올해 겨울을 대비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밍크 머플러를 선보였다. 밍크 머플러는 얇은 두께로 무겁고 부한 느낌을 최소화해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포근한 느낌과 탁월한 보온성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가격은 68,600원부터 760,000원대로 다양하다.

## 만 18세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가능

### 금융위, 신탁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시행

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탁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 의무를 신설,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신탁법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서

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유대(영업법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누적판매 4000대' 기아차 허영봉 부장, 그랜드마스터 등극

### 1993년 기아차 입사 24년만에...지금까지 단 7명



누적판매 4000대를 달성한 허영봉 부장에게 그랜드 마스터 칭호를 수여하는 모습이다. 허영봉 부장은 1993년 기아차에 입사해 24년만에 판매 4000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18일 서울 압구정동 브랜드 체험공간 'BEAT360'에서 허 부장에게 그랜드 마스터 칭호를 부여하고, 부상으로 스틱어 차량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차 판매 지점에서 근무하며 누적판매 4000대를 기록한 판매 장인에게 기아차가 부여하는 호칭으로, 지금까지 단 7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허 부장은 1993년 기아차에 입사해 24년만에 판매 4000대를 돌파했다.

허영봉 영업부장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기본에 충실하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 11월 분양물량 4만8870가구, 역대 두 번째로 많아

### 2000년 이후 11월 평균 분양물량 2만5912가구

11월에 전국에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올 들어 월간 분양물량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조합원 분양물량 및 임대아파트 제외)는 총 90개단지 4만8870가구로 조사됐다.

11월 분양물량은 2000년 이후 지난 2015년 5만723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2만8561가구

보다는 71.1%(2만809가구) 증가했다. 2000년 이후 11월 평균 분양물량은 2만5912가구였다.

지역별 11월 분양물량은 수도권 48개단지 2만650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다. 5대 광역시 20개단지는 1만286가구로 125.6% 늘었다. 지방 중소도시는 22개단지 1만2075가구로 2.1% 늘어날 예정이다.

인천은 송도 SK뷰 센트럴(주상복합, 299가구) 등 4개단지 1177가구

가 분양예정이다. 5대 광역시에선 20개단지 1만28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부산에선 45.4%에 달하는 4674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어 광주(4곳 3506가구), 울산(3곳 1172가구), 대구(3곳 934가구), 대전(1곳 420가구)의 순이다.

부산 서면 아이파크전포2-1구역, 1225가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연산6구역, 667가구), 광안자이(광안1구역, 170가구) 등이 주요 분양단지다.

한편 지방 중소도시는 경우 22개단지 1만2075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